

말라기 강해 (1)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는 열방 중에서 높으심을 보여 주십니다

말라기 1:1-5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고서 말을 건넵니다. 상대를 보고서 대화하는 것은 혼자 책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의 말을 받아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형식적인 말이나 건네지 진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고백을 할 때에는 더욱 살펴서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말라기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흠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십일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말로 사랑한다구요?” 하면서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거부할 것을 모르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계속하여 텅겨낼 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독백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하여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거부하는 죄인에게 계속하여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소선지서의 처음 책인 호세아서에는 간음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에서도 여호와와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한 사랑이 소선지서 열두 권을 관통하다가 말라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라기의 말씀도 읽습니다.

1. 사랑을 고백하시고 설명해 주심

- 1 과업, 곧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와의 말씀.
- 2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¹⁾”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아굽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나는 아굽을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그의 산지들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의 기업은 승냥이가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

1) 완료형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들려주심 -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유대감과 친밀함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지만,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구체적인 사랑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 주시려고 손을 벌리고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 오게 하였고, 귀환한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기에,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유다를 괴롭게 하였던 에돔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서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망하여 뒤로 물러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레위인을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말씀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2) 반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가까이 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말로요? 아니잖아요!” 하는 투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약속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르게 알았다면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려운 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낼 것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할 것을 감지하셨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말을 이어가십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는 알지만, 자기의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더 설명해 주십니다.

3) 사랑을 설명해 주심: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면서 야곱을 택하신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곧 그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롬 9:11. 참조 창 25:21-26).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들이 계속 받아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가 많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신 7:6-8).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다’ 는 말은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의 산지를 황무지로 만들고 그들의 기업은 승냥이가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는 말로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바다서를 보면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곁에서 보고 조롱하였고, 바벨론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며(욥 10-14), 포로로 잡혀간 유다 땅을 차지하려고도 하였습니다(에 4:21-22).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일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겔 35:10).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에돔이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밝셨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모두 나오고 시편 137편에서도 이 주제를 다룹니다(사 34:5-6; 63:1-6; 렘 49:13, 17-18; 암 1:12; 욥; 시 137편 등).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에돔은 미워하였다” 하는 말로도 표현해 주십니다.

2. 영영한 진노를 받은 에돔

4 에돔이 “비록 우리가 파멸되었으나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우지만 내가 친히 헐어 버릴 것이다.
 그들은 ‘악한 지역’ ‘여호와께서 영원히 진노하시는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에돔을 파멸시키고 황폐케 하셨으나 에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폐허된 성읍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쌓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세우면 여호와께서 친히 헐어서 세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나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에돔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죄에 대한 징벌로 포로 생활을 했더라도 다시 자신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나 에돔은 결코 재건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지역’ 에 대하여 진노하여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찬송: 여호와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위대하시다

5 너희가 그것을 직접 보고서
 “주님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악한 지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원수를 멸망시키는 일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에 불평을 품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에돔과 같은 지역에서도 위대하신 분이라고 선언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이 직접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에돔으로 인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분께 대한 불평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크심을 모르는 이들은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자기를 크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르게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다’ 혹은 ‘위대하다’ 는 말은 1:5에도 나오고 1:11, 14에도 나옵니다. 세 구절에서 주어는 모두 ‘주님’ 혹은 ‘여호와와 이름’ ‘여호와’ 입니다. 왜 하나님의 크심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를 지적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는 크다’ ‘내가 커야 한다’ 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 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크다’ 는 것을 확인받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크신 분을 보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내가 크다’ 는 것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중요한 동기라는 것을 시편에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시 38:16; 55:12-13). 시편 35편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것’ 과 ‘여호와를 높이는 것’ 을 대조하여 가르칩니다.

- 25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26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궁하는 자로 [나보다 크다고 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27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행동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시인은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피하지만,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 표현된 여러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인과 같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입으로 꿀꺽 삼켜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기들의 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시인을 없애려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인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 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인의 행동의 동기가 ‘자기가 크다’ 는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35:27에서는 ‘여호와를 크시다’ 하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시인이 구원 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시인을 높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높다’ 고 합니다. 그분의 종을 형통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라고 그분만을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대별됩니다.

4.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과 소망

“나를 미워하잖아요!” 하는 말을 우리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는 말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잖아요!” “형을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하면서 부모에게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쌓이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나기도 하고,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훼손된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예언자가 오면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4:6). 사랑과 미움에 관한 1장의 말씀이 말라기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으나 다윗 왕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절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에 오면 나의 생명이 피어날 뿐 아니라 자녀들의 생활도 한 단계 더 높은 데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조금 인내하면 어느 정도라도 풀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낙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완성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세 가지로 1장 앞부분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을 봅니다. 말라기 1:2-3은 로마서 9:11-13에 인용되었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과 연결됩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을 주장하셨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할 때에 뱀엘에 나타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거기에서 가족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압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나그네의 삶을 고백할 때까지 그를 정결케 하면서 원숙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형보다 크게 되려고 노력한 그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숙한 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고백하는 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새로 지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돔에 대하여 품고 있는 현실적인 의문을 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예돔이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에 기뻐하면서 자기의 잊속을 채긴 그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악한 지경’ 이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알려 줍니다.

셋째,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종말의 완성을 ‘소망’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돔을 징계하신 결과는 “여호와와 이름이 열방 중에서 위대하다” 하는 찬송입니다. 사람을 높이려는 것이 모두 사라지고 여호와와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대하다’ 혹은 ‘크다’ 는 것은 사랑과 미움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웠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어머니의 배를 터치고 나올 정도로 모태에서부터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유가 없이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한 본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인데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높음을 확인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열방 중에서 위대하다 하고 높이면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맹수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맹수의 세계에서는 우두머리가 하나이고, 그 서열을 정하려고 수컷끼리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사자와 곰이 풀을 먹고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과 어린염소가 함께 있는 거룩한 산을 보여 주십니다. 육식동물의 본성이 바뀐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보여 주십니다.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완

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불변하는 사랑은 야곱을 택하신 사랑,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서 높아지실 여호와와 이름을 제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택하신 사실을 보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현재의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다고 찬송하는 새로운 세계를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이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살피면서 나아가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회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부를 때에 사자와 곰처럼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명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위를 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거부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크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응답송: 시편 139편 7-9절, 12절